



[라이프] 시 키오스크 등 스마트뷰티 시대 활짝 화장품 '뷰티 혁명' 나



Life

[AI뉴스] 아틀라스랩스 인공지능 전화앱으로 핵심요약까지 '척척' L4



맑은 공기, 바람길 따라 도심으로... 서울시 '바람길 숲' 조성

관악산·북한산에 공기 정화길 미세먼지 저감·기후변화 대응

바람 생성숲·연결숲·확산숲 등 대상지별 3가지 유형으로 구성

관악산과 북한산의 맑고 찬 공기가 서울 도심으로 흐를 수 있도록 '바람길'을 열어주는 숲이 하천·도로변에 생긴다. 바람이 지나가는 길목엔 소나무, 단풍나무와 같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나무를 촘촘히 심어 '선형'의 공기정화길을 만든다.

서울시는 내년 말까지 170억원을 들여 관악산-안양천일대(강남권)와 북한산-우이천 일대(강북권) 2개소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 바람길 숲'을 조성한다고 14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적의 바람길을 찾기 위해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이동 경로를 시뮬레이션해 대상지를 선정하



고, 각 대상지별로 적합한 조성 모델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시는 독일 기상청이 개발한 '찬 공기 유동분석 시뮬레이션(KLAM_21)'의 분석 모델을 활용해 대상지를 정했다.

도시 바람길 숲은 ▲산림의 신선한 공기가 도심으로 흐르도록 방향을 잡아 주는 '바람 생성 숲'(산림) ▲산림-도심을 연결하는 통로에 공기정화 식물을 심는 '연결숲'(하천·가로) ▲공원 조성,



옥상·벽면 녹화 등으로 도심에 만드는 '디딤·확산숲'(도심)의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됐다.

이중 '연결숲'은 하천·가로변 총 51km(10만1443m²)에 교목 3230주와 관목 45만3895주를 포함 46만여주의 수목을 심어 선형의 녹지축을 완성한다. 산벚나무, 상수리나무 등 미세먼지 저감 수종을 식재한다. 미세하고 복잡한 표면을 가진 나뭇잎이 미세먼지를 흡착·흡

수하고, 가지와 나무줄기가 미세먼지 이동을 차단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바람 생성 숲'은 산림의 공기가 도심 방향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숲을 가꿔 바람의 통로를 만들고 미세먼지 저감 수종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조성한다. '디딤·확산숲'은 도심 내 공원이나 건물 외벽을 활용해 소규모 숲을 만들어 기존 차로 인한 미풍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시는 바람길 숲을 통해 도시 외곽 산림의 공기를 도심으로 유입·확산시켜 정체된 대기의 순환을 촉진, 미세먼지를 줄이고 열섬현상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여름 한낮의 서울 도심 평균기온을 3~7℃ 낮춰 시민들에게 폭염 피난처를 제공하고, 공기정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1헥타르(ha)의 숲은 연간 168kg의 미세먼지 등 대

기오염 물질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서울시가 첫선을 보이는 '도시 바람길 숲'은 도시 외곽 산림에서 생성되는 맑고 차가운 공기를 서울 도심으로 끌어들이어 여름철 뜨거운 도심 온도를 낮추고,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후변화 대응책"이라며 "앞으로도 산림청과 협업해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 시민들이 쾌적한 녹색 환경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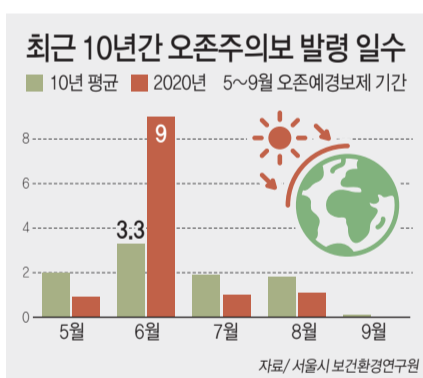
서울시 "여름 기후변화, 오존 발생 경향 바뀌" 고양시 행주산성 등 '2021 열린관광지' 선정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오존주의보 발령일수 25년만에 최고 오존생성 영향 대기오염물질 줄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이하 연구원) 오존경보제를 처음 실시한 1995년 이래, 올해 6월이 월별 오존주의보 발령일수가 가장 많았으며, 5·7·8·9월은 최근 5년 내 동월 대비 최저 수준이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6월 오존주의보 발령 일수는 9일이었으며, 월평균 0.044ppm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 나머지 5·7·8·9월은 0~1일 발령됐다. 특히 8월의 월평균 농도는 0.019ppm으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농도를 기록했다. 9월은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0.028ppm으로 월별 평균 농도 변화폭이 컸다고 연구



원은 설명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최근 10년(2010~2019) 동안 오존주의보 연평균 발령일수는 8.7일이었으나, 금년에는 12일로 늘었다. 오존농도 또한 올해 0.031ppm으로 작년 0.033ppm보다는 줄었지만, 최근 10년 평균인 0.029ppm보다 높았다.

연구원은 "지난 6월 서울의 기온이 23.9도로 역대 3위를 차지할 만큼 높아 오존 발생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됐다"면서 "반면 7·8월은 54일간의 역대 최장장마의 영향으로 고농도 오존 발생에 불리한 조건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연구원이 서울 지역의 오존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원인 물질을 조사한 결과, 질소산화물(NOx)과 함께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승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서울의 연평균 오존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함께 오존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 물질 줄이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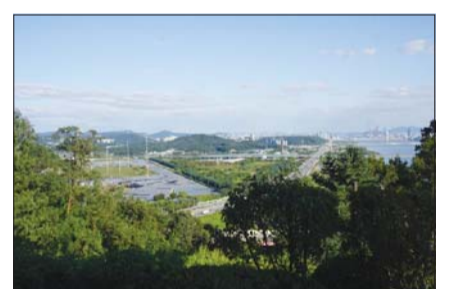
문체부, 8개 지자체 총 20곳 선정

고양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1년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7억5천만 원을 지원받아 시비 7억5천만 원을 포함해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

이번 공모는 17개 지자체에서 54개소를 신청했고 고양시를 비롯한 8개 지자체의 총 20곳이 최종 선정됐다. 고양시는 ▲행주산성 ▲행주산성 역사공원 ▲행주송학커뮤니티센터 등 3곳을 연계해 선정지로 최종 결정됐다.

'열린관광지'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번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을 통해 그동안 급한 경사로 진입이 어려웠던 행주산성과 훌륭한 생태적 환경이 있지만 정비 필요했던 한강하구의 행주산성 역사공원, 의



행주산성 정상. /서울시

국민만의 전용 전시 체험공간이던 송학 김박물관 등이 새로운 옷을 입게 된다.

고양시는 특히 송학김박물관을 행주마을 주민들의 거점센터 즉, 행주송학 커뮤니티센터로 만들어 여행안내, 역사 체험 등 마을 주민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창의적인 기획을 제시했다. 여기에 행주산성의 지리적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한편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기차를 운행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계획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안성기 기자 ask9990@

서울시, 장애인 위한 영상콘텐츠 전문가 양성

'배리어프리 영상' 첫 수료생 21명 배출

서울시는 '배리어프리 영상제작 전문교육'의 첫 수료생 21명을 배출한다고 14일 밝혔다. 수료식은 이날 동국대학교 아이스페이스(iSpace)에서 무관중으로 열렸다.

'배리어프리 영상'이란 기존의 영상에 화면을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해설과 화자·대사·음악·소리정보를 알려주는 한글자막을 넣어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영상을 말한다.

이번 배리어프리 영상제작 전문교육은 애니메이션, 영화 등 자체 개발한 영



배리어프리 영상제작 교육 모습. /서울시

상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제작자가 본인의 영상을 시·청각 장애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만들어보는 방식으로 4주간 운영됐다.

/김현정 기자

김포시, 청년일자리포럼 오늘부터 온라인 개최

김포시는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위축된 청년 일자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2020 온라인 청년일자리포럼'을 개최한다.

김포시, 부천시, 고용노동부,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주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언택트 시대의 고용 및 직업능력개발과 취업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김포·부천시청 청년고용협의회, 김포시일자리창출위원회 등 지역고용거버넌스를 주축으로 마련됐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안성기 기자

Weather forecast for October 15th (Thursday). Seoul: 6/17. Includes a map of Korea showing weather in various cities like Incheon, Gyeongju, and Seoul.